

2007년 IMD 교육부문 국제경쟁력 결과 보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한 교육부문 국제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42위에서 올해 29위로 크게 상승하여 이에 대한 세부 지표별 현황, 분석 및 대책을 보고드립니다.

1. 평가 결과

○ 교육부문 순위 : 44위(’04) → 40위(’05) → **42위(’06)** → **29위(’07)**

※ 국가전체 순위 : 31위(’04) → 27위(’05) → **32위(’06)** → **29위(’07)**

구 분		’06		’07		전년 대비
		산출값	순위	산출값	순위	
통계 지표 (7개)	1.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4.0	48	4.6	29	19↑
	2.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명)	30.2	56	29.10	52	4↑
	3.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수(명)	17.80	41	17.90	44	3↓
	4. 중등학교 취학률(%)	87	33	88.3	27	6↑
	5.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47.0	4	49.0	4	-
	6. PISA 성적(’03) : 수학, 과학(점)	542/538	3,4	542/538	3,4	-
	7. 15세 이상 문맹률(%)	2.1	34	2.0	32	2↑
설문 지표 (7개)	1. 교육제도(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여부)	4.47	38	4.22	32	6↑
	2. 대학교육(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여부)	4.29	50	4.46	40	10↑
	3. 시민의 경제지식 수준	5.64	22	6.57	12	10↑
	4. 경제교육(기업의 요구에 부합여부)	4.86	46	5.47	28	18↑
	5. 언어능력(기업의 요구에 부합여부)	4.65	35	3.93	44	9↓
	6. 수준급 엔지니어의 공급여부	4.73	54	6.83	13	41↑
	7. 기업과 대학간 지식이전의 충분한 정도	4.55	32	5.37	21	11↑
국가 수(개)		61		55		

* 통계지표의 ()안은 산출값의 단위이며, 설문지표 항목의 산출값은 10점 만점 기준

○ 교육부문 국가별 순위

- 아이슬란드 1위, 덴마크 2위, 이스라엘 3위로 10위권 내 유럽 국가가 8개가 포함되어 유럽권 강세
-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타이완, 일본, 홍콩, 한국 순서

<2007 IMD 교육부문 국가별 순위>

순위	국가명	순위	국가명	순위	국가명	순위	국가명	순위	국가명
1	아이슬란드	12	호주	23	에스토니아	34	이태리	45	칠레
2	덴마크	13	미국	24	독일	35	체코	46	태국
3	이스라엘	14	네덜란드	25	홍콩	36	러시아	47	터키
4	벨기에	15	아일랜드	26	슬로베니아	37	폴란드	48	브라질
5	스웨덴	16	룩셈부르크	27	영국	38	불가리아	49	콜롬비아
6	핀란드	17	뉴질랜드	28	포르투갈	39	우크라이나	50	멕시코
7	스위스	18	타이완	29	대한민국	40	루마니아	51	인도네시아
8	캐나다	19	일본	30	스페인	41	크로아티아	52	필리핀
9	노르웨이	20	프랑스	31	말레이시아	42	슬로바키아	53	베네수엘라
10	오스트리아	21	헝가리	32	그리스	43	아르헨티나	54	인도
11	싱가포르	22	리투아니아	33	요르단	44	중국	55	남아공

2. 강점 분석

□ 지속적인 강점 분야

- 고등교육 이수율(25~34세)은 높아진 대학진학률(82.1%)에 힘입어 캐나다(53%), 일본(52%), 싱가포르(51.9%)에 이어 4위
- PISA 성적(2003)은 수학3위, 과학4위로 최상위 수준 유지

□ 순위 향상 분야

- 지속적인 교육재정 확충으로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순위가 크게 상승 (19↑, 29위)
- 평가 기준년도인 '04년에는 '00년 대비 2배 수준 증가

※ 교육관련 공공지출액 증가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교육관련 공공지출 (조원)	18.3	22.2	27.7	33.5	36.1

(’07.7.16., 2007년 IMD 교육부문 국제경쟁력 결과 보고, 교육문화비서관실)

○ 교육제도와 대학교육의 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여부 순위 상승

- 산학협력, 현장적응력 있는 인재 양성 정책(누리사업), 대학 특성화, R&D 투자 확대 등의 효과로 분석

- 그러나, 대학교육의 부합여부는 **아직 40위에 불과**

⇒ 인력수급 등 산업계 요구를 대학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 기업과 대학 교육과정 간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 조사, 기업 요구와 교육훈련 실태 조사 등 기업요구를 파악하여 인력양성에 반영

○ 수준급 엔지니어의 공급여부 순위가 **41단계 크게 상승, 13위**

- 참여정부의 신(新)산학협력 정책 추진으로 기업인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

* 전국 356개 대학 중 333개 대학에 산학협력단 설치(’06.1)

*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 115명의 산학협력 전담교수 배치

* 대학 특허 출원 건수 증가 : 711건(’01) → 2,857건(’05)

-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도 이공계 경쟁력 상승 요인

※ 정부 R&D 예산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정부 R&D 예산 (조원)	6.1	6.5	7.1	7.8	8.9	9.8
증감률 (%)	7.1	6.1	8.7	10.1	14.2	9.6

* 자료 : 기획예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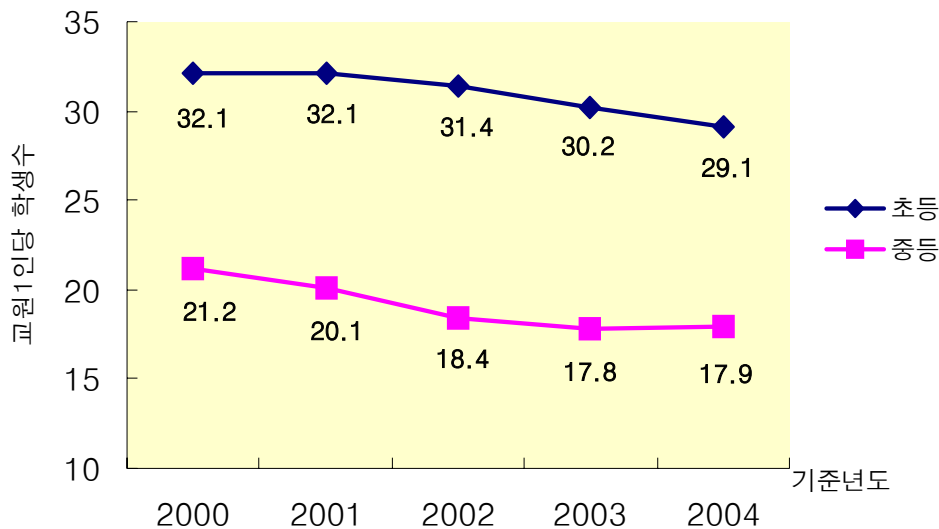
⇒ 그동안 산업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비판 받아온 대학교육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지속적 투자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약점 분석 및 대책

□ 초·중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 초등 52위, 중등 44위로 평가 지표 중 가장 낮은 수위
-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초등 16.9명, 중등 13.3명)에 크게 못 미치는 초등 29.1명, 중등 17.9명



출처 : OECD EAG

- (대책)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개선이 예상되나,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원 증원이 필요

□ 언어능력의 기업요구 부합여부

- 10점 만점에 3.93점(44위)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기업의 대졸자에 대한 외국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
- 대책
 - 방과후학교, 원어민 강사, 초등영어체험센터, 제주영어전용타운, EBS 영어방송 등을 통하여 학교의 외국어교육을 내실화
 - 외국인 교수 확충,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추진

[첨부]

IMD 국가경쟁력 평가 개요

□ 평가 개요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이 ’79년부터 매년 조사 발표
 - 국가경쟁력 개념 : 기업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여건 창출** 유지 능력
- 평가대상 : 55개국(’07년)
- 평가영역 : 4개분야, 20개 부문, 323개 항목
 - 4개분야 : 경제운영 성과, 정부행정 효율, 기업경영 효율, 발전인프라 구축
 - 교육부문은 발전인프라 구축 5개 부문 중 1부문으로 **12개 항목** (PISA 성적과 문맹률 제외)으로 측정
- 평가 방법
 - 통계지표와 설문지표의 가중치는 2:1
 - ’07년 설문평가는 55개국 3,700여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IMD 교육부문 순위 추이

구 분		’04		’05		’06		’07	
		현황	순위	현황	순위	현황	순위	현황	순위
통계 지표	1.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3.571	52	4.0	46	4.0	48	4.6	29
	2.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명)	32.10	56	31.40	54	30.2	56	29.10	52
	3.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수(명)	20.10	49	18.40	45	17.80	41	17.90	44
	4. 중등학교 취학률(%)*1)	94.7	10	97.2	6	87	33	88.3	27
	5.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39.51	5	41.0	4	47.0	4	49.0	4
	6. PISA 성적(’00) : 수학, 과학(점)	547/552	2,1	547/552	3,1	542/538	3,4	542/538	3,4
	7. 15세 이상 문맹률(%)	2.1	34	2.1	33	2.1	34	2.0	32
설문 지표	1. 교육제도(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여부)	3.92	52	4.00	43	4.47	38	4.22	32
	2. 대학교육(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여부)	3.58	59	4.00	52	4.29	50	4.46	40
	3. 시민의 경제지식 수준	5.5	24	5.89	18	5.64	22	6.57	12
	4. 경제교육(기업의 요구에 부합여부)	4.58	51	4.85	46	4.86	46	5.47	28
	5. 언어능력(기업의 요구에 부합여부)	-	-	4.52	38	4.65	35	3.93	44
	6. 수준급 엔지니어의 공급여부	5.63	52	6.09	45	4.73	54	6.83	13
	7. 기업과 대학간 지식이전의 충분한 정도	4.04	42	5.08	21	4.55	32	5.37	21
조사대상국가			60		60		61		55
국가경쟁력 순위			35		29		38		29
교육부문 순위			44		40		42		29

* 1) ’04~’05년은 **총취학률**(출처 : KEDI)이고, ’06~’07년은 **순취학률**(출처 : UNESCO data)임

- 총취학률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중등학교 재적학생수”를, 순취학률은 “12~17세 재적학생수”를 대상으로 함
- KEDI는 취학률 산정시 분모에 “통계청 인구추계”를, UNESCO는 “UN 인구추계”를 사용함에 따라 차이 발생

□ 2007 IMD 아시아권 국가 상세 순위

구분	싱가폴	타이완	일본	홍콩	한국	중국
교육분야 전체 순위	11위	18위	19위	25위	29위	44위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3.14(51)	4.39(33)	3.93(43)	3.90(44)	4.63(29)	3.07(52)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명)	24.0(47)	18.30(32)	19.60(40)	19.10(38)	29.10(52)	19.98(41)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수(명)	19.0(47)	17.4(41)	14.1(28)	18.00(45)	17.9(44)	18.65(46)
중등학교 취학률(%)	92.0(17)	93.5(13)	99.9(1)	77.9(44)	88.32(27)	-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51.9(3)	45.0(6)	52.00(2)	37.9(15)	49.00(4)	5.00(50)
PISA 성적(수학, 과학)	-	-	534(5)/548(1)	550(1)/539(3)	542(3)/538(4)	-
15세 이상 문맹률(%)	7.50(45)	2.84(36)	1.00(1)	6.5(40)	2.00(32)	9.10(48)
교육제도(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여부)	8.04(1)	5.45(18)	4.79(26)	5.96(14)	4.22(32)	4.73(27)
대학교육(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여부)	8.24(1)	5.30(25)	4.41(43)	5.88(22)	4.46(40)	4.98(28)
시민의 경제지식 수준	7.58(2)	6.38(16)	6.55(13)	6.90(6)	6.57(12)	4.17(34)
경제교육(기업의 요구에 부합여부)	7.81(3)	6.23(22)	5.26(31)	6.71(18)	5.47(28)	4.73(41)
언어능력(기업의 요구에 부합여부)	8.00(5)	4.90(33)	3.53(51)	5.55(28)	3.93(44)	4.65(37)
수준급 엔지니어의 공급여부	7.84(2)	6.52(19)	6.06(27)	6.25(24)	6.83(13)	3.77(53)
기업과 대학간 지식이전의 충분한 정도	7.04(2)	5.51(19)	5.30(23)	5.55(18)	5.37(21)	3.98(38)

※ ()는 순위

□ 통계 지표 출처(2007)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2006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명)	OECD EAG 2006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수(명)	OECD EAG 2006
중등학교 취학률(%)	UNESCO Website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OECD EAG 2006
PISA 성적('00) : 수학/과학(점)	www.pisa.oecd.org
15세 이상 문맹률(%)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